

# 익산시, 친환경 농업분야 투자 확대

### 미생물 활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50개 농가 시범사업 추진 환경문제 개선·경영비 절감 등...농가소득 증대 효과 기대

익산시가 친환경 농업 분야의 투자를 확대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2500만원을 투자, 자가 조제 미생물 활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과 시설하우스 친환경 토양소독 기술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자가 조제 미생물 활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50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농업 미생물인 클로렐라를 보급해 환경문제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 등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급되는 클로렐라는 민물에 사는 엽록체를 가진 녹조류로 이를 활용해 작물을 재배하면 콩나물의 경우 80%, 딸기 57%, 상추 30% 등의 생육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병해 예방 효과가 탁월해 흰가루병

93%, 잿빛곰팡이병 89%, 노균병 79%, 균핵병 70%가 감소한다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도 있다.  
시는 클로렐라와 함께 미생물 먹이를 넣고 배양한 물인 퇴비차(Compost tea)를 보급해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 등에 나선다.  
시는 클로렐라와 퇴비차 보급을 통해 농산물의 수량증가와 품질향상,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시설하우스 친환경 토양소독 기술시범 사업을 통해 유해 병원균 차단과 연작장애를 개선한다.

공업용 알코올을 활용해 토양을 소독하는 이 기술은 기존 약제소독보다 안전하고 소독기간이 20일 정도로 짧은 장점이 있다.  
또 환경 부하가 적고 인체에 독성이 없어 유기농·무농약 인증 농가의 토양소독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보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은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사업"이라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돈 버는 농업으로 행복한 익산 농업인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강점산업 키우자”

### 송하진 지사 등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7일 정읍시 상평동 아크로웨딩타운에서 지역 상공인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유성엽 국회의원, 유진섭 정읍시장, 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 정읍교육청 김수봉 교육장, 정읍세무서 정학관서장을 비롯해 정읍·김제·부안·고창 등 4개 시·군 상공인들이 참석했다.  
김적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해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미래형 자동차 등 전북지역 강점산업과 신산업을 연계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올해를 우리도의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체계를 완성하는 원년으로 삼아 유망 중소기업 선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돌봄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기업이 우리시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체 임·직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적우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지역 산업 활성화를 다지는 의미로 떡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제공>  
들의 공로를 인정해 전라북도지사 표창 3명, 대한상의 회장 감사패 4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남원지역 스포츠 동계 전지훈련 즐긴다

### 유소년 축구단·복싱 국가대표 등 ‘구슬땀’

남원지역이 축구와 복싱, 테니스 등 종목목을 가리지 않고 전지훈련 장소로 손꼽히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유소년 축구단인 U-12와 U-11, U-10 27클럽 68개팀 1300여명의 선수 및 지도자들이 남원 스포트브리기에 참가, 실전 경험 및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유소년 축구팀이 남원을 찾는 것은 수원 삼성과 울산 현대, 아산 무궁화 등 프로팀 산하 우수팀이 남원에서 전지훈련을 열어 수준 높은 동계훈련과 연습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싱 선수도 남원에서 기량 향상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국가대표 36명 외 국군체육부대, 대전대학교, 전국체고 등 12팀 146명이 우수 실업 및 학생팀

과 합동 훈련을 통한 선수 기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테니스 선수도 남원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남원은 이덕희, 김준호 선수를 배출한 테니스 고장으로 춘향골 다목적구장과 실외코트에서 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우수 10개교 100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훈련 기간 동안 선수단 및 학부모들의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몽골텐트와 난로를 설치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체육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선수단이 최상 컨디션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전지훈련으로 속박 시설 및 음식점 이용, 특산품 쇼핑 등 10



유소년 축구단 연습경기 모습.  
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전지훈련 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도시로 위상을 확고히 굳혀가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 목포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선원 선불금 사기 등

다가오는 설 명절 원산지 허위 표시와 선원의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설 명절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수사 활동을 통한 사전 예방을 위해 다음달 27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목포해경은 우범항·포구별 형사요원들로 이루어진 전담반을 투입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거

짓표시·불량식품 유통 사범 ▲해역별 영업·지역간 조업분쟁 및 지속적인 불법조업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해양중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이다.  
특히 현장중심의 형사활동 강화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하는 한편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영세 어업인의 어획물 및 장비 절도와 선원들 간 인권유린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민 기자 kyl@

# 월출산국립공원 주차장 연중 무료 개방

### 도갑사 관람료 면제

영암군이 월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도갑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립공원 주차장과 사찰 관람을 지난 1월 1일부터 무료 개방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월출산 국립공원은 주차요금으로 경차 2000원, 중·소형 4000~5000원, 대형 6000~7000원과 도갑사 사찰 관람료 2000원을 징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천황주차장 439대(소형 389, 대형 50) 시설을 국립공원측과 업무협의를 거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무료 개방을 시행했다.  
올해는 월출산 탐방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편의 도모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도갑주차장 150대 시설과 천년고찰 도갑사 관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했다.  
이로써 월출산 국립공원 전 지역의 주차장 시설과 사찰 관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영암 관광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고 탐방객 유치에도 힘을 얻게 됐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월출산국립공원의 모든 시설 무료 개방은 영암 관광이미지 제고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탐방객의 편의와 이용증진을 위한 고민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꽃의고장’ 영암을 찾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월출산은 봄에는 철쭉과 진달래가 만발하고 여름에는 푸르른 신록이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위용을 뽐내며,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암봉과 능선을 따라 눈이 내려 온통 하얀 색을 연출해 수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

# 순창군,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사업 호응

순창군이 지난해 지역 음식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입식 테이블 교체’ 사업이 사업주와 군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음식점 10개에 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좌식 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군이 그간 지역 음식점을 방문하는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불편했던 좌식문화를 개선하고 편리한 입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음식점 업주와 이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반응이 좋음에 따라 군은 올해도 관련 사업을 추진해 음식점 환경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은 이달 중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은 순창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음식점을 운영한 업주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음식점은 맛과 청결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편리한 시설”이라며 “음식점 시설 개선을 통해 우리 군 음식점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돼 편안하고 쾌적한 식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장영란 기자 jyg@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연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